

---

第118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2000年3月7日(火) 午後2時

場所 企劃經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市政開發研究院所管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市政開發研究院所管業務報告 ... 1面

---

(14時 28分 開議)

○ 委員長 鄭韓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臨時會 제1차 企劃經濟 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市政開發研究院所管業務報告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市政開發研究院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평소 존경하는 鄭韓植 委員長님, 그리고 企劃經濟 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 재정이 넉넉치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연구예산을

적극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보다 실용적이고 내용이 알찬 연구결과를 생산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절약과 절제를 더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항상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시정을 과학화 시켜서 살기 좋은 서울을 창조해 나가는 데 조그만 힘이나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지도와 성원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報告)

市政開發研究院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韓植;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亮漢 委員님.

○李亮漢 委員; 李亮漢委員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나온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대학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시정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시립대학에 의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市立大學運營에 관한條例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하는 과제를 시립대학에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市政開發研究院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저희 연구원 입장은 李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육성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그러한 연구의뢰에서 사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립대학에서도 아마 숙원사업으로 그런 조항을 넣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습시다만, 시립대하고 연구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성격으로 봐서 시립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판단되는 연구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시립대에 분업화된 체제로 그쪽에 연구를 위임하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의하신 시립대의 운영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제가 院 입장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공조체제로도 얼마든지 시립대가 할 연구, 우리가 할 연구가 분명히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시립대하고 市政開發研究院이 양쪽

에 다 해도 별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립대학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매인 사항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대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립대에서도 그러한 조항을 갖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李亮漢 委員;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정되고 그게 발전 진일보되면 市政開發研究院이 시립대학의 연구소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운영체계에서 市政開發研究院이 시립대학 연구원으로도 전략할 수 있다는 사항을, 院長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李亮漢 委員; 그리고 지난번 시립대학에서 이런 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연구과제를 의뢰하면 그 의뢰된 과제를 市政開發研究院이나 시립대학에서 연구해서 지금 하고 있죠?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李亮漢 委員;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교수들로부터 시정연구한 과제를 접수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 가지고 그 필요한 과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아

주 적극적 방법에 의해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미리 만들어서 그 만든 사항을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시립대학은 그렇게 나오는데 市政開發研究院은 그런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저희 市政開發研究院에서도 그러한 시민들이 제안한 연구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도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제은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이라도 저희 연구원에서 꼭 수행해 주십사 하는 연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그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시립대학에서 해마다 제안하고 있는 시정에 관련된 연구,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본청 라인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 院 자체에서 發案한 연구들하고 또 시립대 교수님들이 제의하신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은 연구 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해서 연구한 것하고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하고 연구비율은 얼마쯤 됩니까? 몇 건에 몇 건쯤 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서울시가 발의한 것은 14개고요, 지금 작년 것이.

○李亮漢 委員; 작년 것을 해 보세요, 올해는 시작도 안 했으

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서울시에서 발의한 것이 14개, 저희 자체가 12개 해서 26개입니다.

○李亮漢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시정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부시장으로 오신 강홍빈 박사도 도시설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 운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사전논문이라든지 사전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께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현안문제, 현재 발생된 현안문제를 갖고 연구하는데, 이것은 시대착오로 연구원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하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개발하면서 어떻게어떻게 되겠는지 미리 사전에 연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문제점을 연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방향에서 문제 대응적 시정연구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기획연구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현안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7대 3 정도, 7은 현안문제를 다루고 3 정도는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방적이라고 할까 대응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월드컵관계 연구도 그렇습니다만 난지도 등에 지금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역계획도 사실은 2020년까지 미리 보고 초장기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한 다든지 또는 그린벨트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당장 급한 사항 못지 않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계획성이 별로 없고, 운영에 많이 미숙한 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항상 뒷바라지하는 연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잠실, 강남, 도곡지구, 청담지구, 양천지구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약 26개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연구된 과제는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전문가적인 답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權寧德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네, 답변하십시오.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제가 아마 95·96년도에 잠실, 반포, 화곡, 암사지구에 대해서 재건축을 상정해서 1년 반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이, 밀도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용적을 400% 너무 높은 수치고 그런 지역들이 대개 교통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교통문제하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약 5만여 세대가 되는데 그 중 한 80%가 평형으로 따지면 10평대 이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개발 그대로 할 경우에 상당히 소형주택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총 용적률 개념으로 200%를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때 당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세입자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개발의 시기를 시차를 두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작업을 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7평, 10평, 15평이 25평, 30평으로 변화되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0.4대의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자는 아파트들이. 실제 지금 재건축을 하면 3.5대의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배냐 하면 다섯 배나 여섯 배의 자동차 분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러면 만약에 잠실하고 강남 재건축을 1단지에서 4단지를 한다고 하면 강남과 강북에 다리를 몇 개를 더 놓아야 되는



지 아십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일들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도시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망가집니다.

완전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못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만 교통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면 강남, 송파뿐만 아니라 26개 권역, 상암지역이라든지 모든 지역 전부가 지금 현재 자동차의 다섯 배로 운영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교통의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趙淳 市長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교통해결의 방법이다라는 식의 얘기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서울시의 삶의 질을 위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위원회고 도시국장 얘기는 무조건 지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교통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에서 어떤 것은 빌딩 하나 하나, 아파트 하나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지금 어떤 단지 한 단지를 놓고 잠실교량하고 얘기한다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제도의 그런 제도를 고쳐야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고치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잠실을 얘기하면 1단지 재건축하고 10년 있다 하고, 2단지 10년 있다 하고 이러면 될 거예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다 되었을 때 1단지 교통평가에서는 합격, 2단지 교통평가에서는 합격, 3단지 합격, 4단지 합격인데 1·2·3·4단지를 놓고 보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 이런 점을 지적해서, 지금 상암동이고 월드컵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해요, 지금 당장 급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진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제도가.....

종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또 중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서초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어달라고 민원만 발생하면 그냥 때려지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합니까?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제가 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잠실, 반포를 포함해서 5만여 세대에서 그때 당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때 여기에 계셨던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잠실, 반포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성공리에 잘 끝났는데 그때 그분들이 요구했던 용적률이 400% 가까운데 200%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그런 개발의 움직임이지,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밀도를 상당히 낮추었다는 것을 저로 보아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단위로 교통영향을 평가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접근한 방법도 강남에 예를 들면 잠실 1·2·3·4·5단지하고 시영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보면서 그 주변에서 개발이 일어날 것까지

다 상정을 해서 같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반포지역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과업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폭 넓게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문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구릉지에 주택재개발이 여기 저기에 막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국에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도시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을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2년여에 걸쳐서, 98년도인가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예를 들면 미아지역이라든가 금호지역, 봉천지역 같이 2만여 세대 가까이 재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업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밀도를 낮추면서 그와 아울러 주변에서 앞으로 일어날 재개발 사업지구를 전부 상정을 해서 장래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이 나쁘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밀도를 낮추는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재설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5년, 10년 뒤에 큰일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논문이 채택되어서, 의제가 채택되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 우리 연구논문에 대해서 반영사항을?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그래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아까 잠실, 반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이 되었고 특히 당대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주택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도 들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상범위를 넓혀서 계획적으로 밀도를 낮춤과 동시에 지금 같은 도시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李亮漢 委員; 지금 얘기는 용적률 400%에서 200%로 줄이는데, 지금 현재 시행은 300%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 자체를.....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그것은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고, 지금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00% 까지 하지 않고 대개 250% 이하로 이미 진행되는 것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서 한 연구논문을 반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가 직접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지금 서울시가 26개 지역에 5층짜리 재건축을 해서 10여 층, 많으면 25층까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그것이 몇 만 세대입니까?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전체 세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평형이 넓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있긴 있겠습니다.

아까 평형이 넓어진다면 고소득계층으로 바뀌면서 주차라든가 차량보유 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교통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저희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희망적으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전부 서울시민이 부자 되겠습니다. 10평에서 큰 대형평수로 가면 서울시민이 다 부자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는 공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대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기본 땅을 가진 사람들은 공짜로 살고 늘어나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가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1.5배, 2.5배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도시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년 뒤에, 지금 허가내 주고 나면 서울시 그때 다 건축이 될 거예요. 그 뒤 20년 뒤에는 서울시 못 견뎌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는 경기도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저희 서울시만 하면 안 됩니다. 과천, 성남, 분당, 수지, 전부 연계해서 연구된 발표가 되어야 돼요. 지금 서울시 하나만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다 잘 돼요.

그런데 경기도 차가 서울로 막 들어옵니다. 출·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 있습니까?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고층건물 개발들이 일어납니다. 법제도가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建築法, 都市計劃法에서 용적률 400%라는 것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지정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용적률이 아닙니다.

대개 200% 이하가 주거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기초연구 했었느냐 하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근원적으로 용적률이 잘못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층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특히 구릉지 같은 데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하고 建交部 같이 都市計劃法施行令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연구한 결과를 넣어서 일반주거지역,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밀도를 반 정도로 확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都市計劃法을 고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네.

○李亮漢 委員;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하면 市政開發研究院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저질러 놓은 것을 연구해 봤자 헛일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배관문제, 상수도·하수도·가스·전기, 전부 박스형으로 해야 된다는 게 불란서나 영국, 선진국에 전부 가보면 옛날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도시설계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시 자체에서 그 모든 배관문제가 박스형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소속돼 있는 가스공사에도 터져 가지고 문제가 났는데 만들어진 것은 고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들어요. 당초부터 이런 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 지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저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은 市政開發研究院이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앞서 가는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趙相勳 委員님.

○趙相勳 委員; 趙相勳 委員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발팀이라고 있는데 연구부서로 봤을 때 사업개발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만든 건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사업개발팀은 서울시에 있는 상

당한 규모입니다. 몇 만평 이상의 넓은 미개발지를 맡는데 거기에 대해서 IMF시대를 맞으면서 외자유치를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趙相勳 委員;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사업개발팀이.....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말씀을.....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대형 프로젝트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99년 예산에서 수탁사업 수입이 11억 5,000만원으로 잡혔는데 2월에 결산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수탁사업 수입이 작년 예산에 초과를 하셨나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죠.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는 行政室長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委員; 더불어서 2000년 예산에 수탁사업을 17억 9,000으로 잡았었는데 이것도 현재 걱정하게 잡혀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行政室長 崔東根; 行政室長입니다.

○趙相勳 委員; 직책과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속기하기가 편합니다.

○行政室長 崔東根; 네, 行政室長 崔東根입니다.

저희 금년 예산에 17억 9,000이 수탁사업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7억 9,000은 수탁사업을 예상한 총액인데 그 동안 3년간에 수탁한 액수의 평균을 잡은 겁니다.



수탁사업이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되지 않았 습니다. 예상해서 우선 잡아 놓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入 超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趙相勳 委員; 작년에는 수탁사업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였 어요?

○行政室長 崔東根; 작년에는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제 들어오기로는 30억 7,1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入超가 됐습니다. 계약기준입니다.

○趙相勳 委員; 계약기준으로 30억이고 1년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런 거죠?

○行政室長 崔東根; 네, 그렇습니다.

○趙相勳 委員;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입금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行政室長 崔東根; 실제로 돈이 들어온 액수요?

○趙相勳 委員; 네, 작년에 입금된 액수요.

○行政室長 崔東根; 결산을 저희가 지난 2월에 했는데 이것 도 사실은 작년에 끝나서 들어온 게 아니고 96년, 97년, 98 년 해가지고 중도금, 준공금 다 합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예산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 하고, 기업회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4억 5,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된 준공금이 들어와 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趙相勳 委員; 네, 알겠습니다.

(鄭韓植 委員長, 李亮漢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亮漢; 趙相勳 委員님, 다 끝났습니까?

○趙相勳 委員;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네.

○趙相勳 委員; 사실 매년 기본연구사업을 하고 올해도 26개 과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이 실제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 투자법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시기 는 한데 수탁연구사업 같은 경우 24개 과제를 끌어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개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23개 과제를 끌어안고 있고 작년부터 어찌 됐든 시작됐던 사업인데 내용들을 보면 또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한 20여 개 과제에 30억 정도면 보통 1억이 넘는 프로젝트 들인데 실제 박사급 연구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초빙까지 합해서 마흔 다섯 분입니다.

○趙相勳 委員; 수탁연구사업이 기본적으로 市政開發研究院의 입장에서는 사업수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연구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실 市가 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면 수탁과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원이라면 어쨌든 한정돼 있고 한정된 연구원이 이것저것 연구과제를 끌어안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무리인 것 같고요.

또 연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심도 있고 풍부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수탁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기 이전에 다양한 행정처리문제라든가 또 비용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연구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탁연구사업이 市政開發研究院 세입

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적절한 수준으로 하고 성과물도 상당히 다른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결과물이 좋다는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줄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 작년부터 해 왔던 수탁과제의 내용이 비용에 비례하겠지만 상당히 큰 용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탁상에서 연구원들이 컴퓨터 두들겨서 보고서 하나 내는 것 갖고는 안 될 사안들인만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많은 연구시간을 부여하시든가, 수탁연구사업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수탁연구가 市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기본연구과제를 줄여버리는 형태더라도 하나 하나의 과제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탁연구와 기본연구 사이의 균형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서울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네, 梁敬淑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작년보다도 市政開發研究院 연구원 조직이 몇 개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세기연구팀, 사업개발팀, 녹색서울연구팀, 월드컵연구지원단 등 이렇게 팀 내지 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직이 확대됐는데 20세기연구팀은 뭘니까? 뭘 하는 연구팀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20세기연구팀은 8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년에 와서 오히려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월드컵연구지원단만이 특별연구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작년업무보다 늘어난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아닙니다. 작년에도 8개팀이 있었습니니다.

○梁敬淑 委員; 작년 초에 8개팀인데 지금 10개 팀이죠?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아닙니다.

○梁敬淑 委員; 단까지 포함하면.....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지금 5페이지 표에 보시면 센터까지 합해서 6개 부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20세기연구팀, 사업개발팀, 녹색서울연구팀, 이렇게 작년부터 있던 팀이 지금 8개 중에서 세 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연구지원단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현시점에서 오히려 감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20세기연구팀에서는 뭘 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저희들 지금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상은 서울시가 20세기에 있어서 사실 개항기부터 따진다면 100여 년 사이에 서울시 변천은 대단히 급격하고 변화무쌍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세기 서울시의 변천사 얘기인데 내용은 우선 사진기록집을 만들어서, 이번에 밀레니엄을 맞이했습니다만 20세기가 지난 100년 사이의 서울의 변모상을 사진으로 담는 그 제작이 3월말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공간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돼왔는가 그런 쪽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

는 문화비평 쪽에서 20세기의 서울시 생활풍습을 비롯해서 예술장르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문학도 있을 것이고 예술에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각 풍속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용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삶의 양식이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걸쳐서 금년까지 완결하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둘로 나뉘어 있고 일부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하고 공동연구로 진행중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분야별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력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알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신규 연구과제 중에 수탁업무가 4건인데 사업개발팀하고 녹색서울연구팀에서 아마 새로운 수탁연구과제를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하고 수탁연구, 정책연구 계획서 있죠? 연구과제 계획서, 어떠한 어떠한 연구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취지하고 연구과제명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네, 알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지금 연구자문위원회나 이사회를 보니까 작년에 연구자문위원회나 이사회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안인지 이것 구성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연구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사회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물론 위원회가 형해화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지금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한 과제들을 보면 도시계획분야하고 교통, 환경이 해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도시계획과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에 반영이 되고, 1년에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되는 연구건수만 해도 각 분야별로 수십건씩이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제로 좋아졌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수십건씩 연구문건들은 많이 나오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비현실적이고, 특히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것을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연구보고서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했을 때 서울시에서 투자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추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예 그것은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연구들이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해낸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市政開發研究院이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것들

이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지금에 있어서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이 물론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것이 도시·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市政開發研究院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그래도 성의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연구과제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보는 편인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다 회의적이었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교통문제가 과연 얼마나 많이 해결되었단 말인가, 얼마나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좀 나아졌다는 것인가, 나아질 전망이라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연구원 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지금까지 연구원이 해 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 재점검하고 중간평가를 할 때다, 그리고 다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은지, 또 과연 현재의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인지에 대해서 다른 서울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어떤 분야별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업무재설계를 市政開發研究院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그 안들을 바람직한 대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市政開發研究院의 존재 자체가 점점 위상도 높아지고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강화되고 필요성도 점점 강화되려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전략적 대비를 해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점점 市政開發研究院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게 되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기획하는 것을 보좌나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각 학교나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더 많이, 우리가 市政開發研究院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 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市政開發研究院에 우선적으로 연구를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관변연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市政開發研究院 자체에서는 그러한 내부점검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깊이 성찰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지적하고요.

또 인력의 배치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만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市政開發研究院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서울시의 주도적인 어떤 행정의 리더들, 흐름들도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의 행정을 주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균형적인 서울시 발전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할 그런 위험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지적한다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로 산업구조가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市政開發研究院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어떤 서울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낼 수 있는 연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팀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안주적인 운영방식으로 특



별한 문제의식 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지적입니다만 市에서의 문제가 예산이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나 재정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운영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어쩌다 한 번 하지 못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외부에 주었는지는 몰라도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깊이도 없이 수치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외국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연구원의 방향이나 수탁연구에 대한 지적도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수탁연구에만 관심이 있고, 외부의 돈 많이 주는 연구 유치하기에만 급급하고, 연구원들은 너무 연구과제에 짓눌려서 제대로 창의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든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고 그만이에요, 해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너무 안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워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權源庸; 梁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부분 제가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 원을 아껴 주시는 도

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요.

99년에 보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장·단기 재정책중문제라든지 성과지향 예산문제, 또 캐시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부채를 포함해서 자금운영, 기금관리 이런 문제하고 금년에도 또 지방세 과세문제하고 재정개선에 관한 연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정보화사업에 지금 현재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연구는 저희들도 梁委員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꼭 시행을 하도록,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과제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원이 된 지 7년이 넘었다고 아까 인사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제는 梁委員님 말씀한 대로 스스로를 한번 자기성찰을 하는 시점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院이 서울시민을 포함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든지 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개혁을 할 때 재원조달이나 이런 점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나치게 허황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 院에도 도시경영연구가 있는데 환경이나 교통이나 또는 도시경영에서 짜놓은 시책을 재원조달 면에서 한번 살펴

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내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부를 넘어서는 협력공동연구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실현성이 없는 연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민간연구소와 경쟁력 강화문제, 앞으로 저희들이 꼭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梁委員님, 다 끝났습니까?

○梁敬淑 委員; 네.

○委員長代理 李亮漢; 市政開發研究院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인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써 市政開發研究院의 위상을 되찾고, 市政開發研究院이 서울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 자리 매김을 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독립채산도 좋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市政開發研究院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5分 散會)

---

○出席委員

鄭韓植 張夏雲 李亮漢 梁敬淑

吳世根 鄭鉉均 李容富 趙相勳

○專門委員

金東秀

○出席公務員

市政開發研究院

院長 權源庸

都市計劃設計研究部長 權寧德

行政室長 崔東根